유적지 순례 109

원정공(原靖公) 적(適)과 제자손

△17세 부윤공 손 묘소 : 화성시 남양면 문호리 대감동

△ 17세 손, 18시 수 묘비

△ 18세 수 묘소 : 선고묘 계하

△대감재사 : 화성시 남양면 문호리 대감동

△19세 황 묘소 : 화성시 비봉 삼화리에서 마도면 쌍송리 송치로 이장

창화공의 차자 원정공(原靖公) 적(適)은 호가 계정(繼亭)이고 충혜왕 2년 관직이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였는데 원의 황제가 왕을 폐위시키고 충숙왕을 다시 복위시킬 때 왕을 잘 보필치 못하였다는 것으로 파직되고 유배되었다.

공은 성절사의 부사가 되어 원에 가서 힘쓴 끝에 왕을 석방시켜 환국하여 즉위케 한 공으로 첨의부참리에서 찬성사가 되고 화산군(花山君)에 책봉되었다.

공은 충혜왕 복위 4년 간신 강윤충, 민환 등의 미움을 사 부친과 함께 많은 노비를 빼앗겼다. 다음해 또 충혜왕이 원에 잡혀가 유배되는 도중 왕이 승하하자 충목왕이 즉위하였는데 공은 10월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가 되고 충정왕 3년 참리(參理)가 되었다.

공민왕 10년 홍건적의 난에 승병을 거느리고 공을 세우니 단성보절공신(端誠保節功臣)이 되고 삼중대광(三重大匡)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승차되었으며 공민왕 14년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었다. 공의 사후 원정(原靖)의 시호를 받았다. 배위 대부인 남양홍씨는 익산군(益山君) 운수의 딸이고 재배 의창황씨는 유의 딸이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 능동에 있다.

원정공(原靖公)의 아들은 밀직제학(密直提學) 현(顯)이고 현의 아들은 부윤공 손(遜), 진사 선(選), 병조판서로 추증된 호군공 정이다.

17世 부윤공(府尹公) 손(遜)과 자손

태조실록에 태조 2년 왕이 신덕왕후와 함께 경천사와 유정동에 있는 공의 사제에서 연(輦)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으니 공은 태조와 잘 아는 사이인 듯 하다. 세종 12년 호조(戶曹)에서 공법을 개정하고자 백관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공이 검교한성윤으로 이는 불가하다 하였다. 공의 생, 졸 년대는 미상인데 단종 1년 공의 묘소가 경기 남양에 있었는데 안평대군 이용이 그 부인을 장사코자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부당하다고 하였다. 묘소는 화성시 남양면 문호리 대감동에 있다.

공은 5남 2녀를 두었는데 장자 정(井)은 교수이고 차자는 이(怡) 대호군이며 3자는 칭(稱) 사직, 4자는 췌(萃), 5자는 교리(校理)공 수(需)이다.

교리공(校理公) 수(需)는 세종 17년 식년시 문과 급제하여 집현전 정자, 교리와 지군지사를 지냈다. 세종 23년 승문원 박사로 성균관 주부(注簿)에 제수되었으며 단종 1년에 함길도 도사(都事)를 지냈는데 안평대군에게 병기를 조달한 사건과 관련하여 관찰사 김문기와 함께 탄핵을 받았다. 계유정난으로 안평대군이 숙청되자 공도 피화된 것으로 보인다. 묘소는 선고묘 계하에 있다. 배위 창녕조씨는 충정공 상치의 딸이다. 조상치는 성삼문 박팽년과 더불어 세종, 문종, 단종 3대를 섬기고 세조가 예조참판을 배하였으나 사직하고 묘비에 "노산조 부제학조상치"라 쓰게 하였다. 후에 장릉에 배향되었다.

아들은 황(晃)과 호(暠)를 두었는데 황(晃)은 부사를 지내고 묘소는 화성 비봉 삼화리에서 마도면 쌍송리 송치로 이장하였다. 호(暠)는 주부로 세조 1년 별시 문과 급제하고 세조 2년 문과중과에 승문원 정자 1등으로 급제하였다. 황의 아들은 이평(以平)이다.

이평(以平)은 별좌(別坐)로서 중종반정에 정국원종공신으로 녹훈되고 명종 14년 개성부 도사로 나온다. 묘소는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송치에 있다. 아들 옹(雍)은 현간을 지내고 묘소는 쌍송리 송치 선고묘 우측에 있다.

이평의 증손 민각(民覺)은 가선대부 호군이다. 옹(雍)의 현손 신도(信道)는 무과 부사이며 묘소는 남양 문호리 대감동 선영에 있다. 민각(民覺)의 손 덕유(德裕)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고 묘소는 비봉면 쌍학리 완현사에 있다. 덕유의 제(弟) 덕창(德昌)은 수직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이고 묘소는 화성시 남양면 염치에 있다.

17世 호군공(護軍公) 정

공은 호군인데 장자 개(愷)가 귀히 되어 자헌대부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미상이다. 아들은 개(愷)와 각(恪)을 두었다.

18世 문평공(文平公) 개(愷)

세종 29년 친시문과급제하고 세조 1년 추충좌익공신에 녹훈되고 세조 2년 선공감정으로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從事官) 겸 요동도사 선위사가 되었으며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이어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에 보임되었다. 세조 3년 지병조사(知兵曹事),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오르고 세조 4년 사정전(思政殿) 연회에 축하시를 지어 올리고 2월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서 황해도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로 나가고 좌익공신으로 녹훈된다.

세조 6년 첨지중추원사가 되었다. 세조 7년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 동8년 복천군(福川君)에 봉해졌다. 이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부임하고 11월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이임하고 세조 9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경기도 관찰사로 나갔다. 이후 복천군(福川君)으로 연회에만 참석하다가 세조 14년 졸하였다. 실록에 성품이 공손하고 부드러우며 세상과 합하기 힘썼다. 뚜렷한 재능은 없었으나 모든 족속을 대함에 관대하였다. 시호를 문평(文平)이라 하니 충신으로 사람을 사랑하니 문이요 절제가 있어 평이다. 묘소는 실전되었다. 후사는 길창군(吉昌君) 맹희(孟禧), 중희(仲禧), 숙희(淑禧), 계희(季禧)와 4녀를 두었다.

장남 길창군(吉昌君) 맹희(孟禧)는 세조 11년 식년시 문과 급제하고 세조 13년 좌승지를 거쳐 도승지(都承旨)가 되고 선위사(宣慰使)가 되어 벽제에 나가고 건주위(建州衛)를 징벌한 공로로 3등이 되고 함길도 절도사가 되었다가 길창군(吉昌君)에 봉해지고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가 되었다. 세조 14년 유도장이 되고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나갔으나 부친의 병으로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에 전보되었다. 성종 1년 이준(李浚)의 무옥(誣獄)이 일어 모반대역죄로 논죄되어 가족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다.

문평공의 차자 중희(仲禧)는 세조 7년 실록에 의영고부직장, 세조 22년 군기시주부로 문폐사(問弊使)가 되어 전라도에 파견되었다. 성종 1년 구성군 이준의 무옥에 백씨가 피화됨에 노비로 되었다가 성종 11년 석방되고 평안도에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는 명을 받았다.

계희(季禧)는 세조 11년 문과급제하고 호조정랑 지제교(知製敎)에 올랐다.

중희(仲禧)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관(瓘)의 현손 대순(大淳)은 부사용(副司勇)을 거쳐 어모장군(禦侮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이르렀다. 묘소는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 있다. 대순의 장남 만득(晩得)은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르고 차남 수영(壽永)은 선조 22년 출생하여 임난시 교서관(校書館)의 수장으로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고 첨정(僉正),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인조 26년 졸하여 요동(遼東)절도사(節度使)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쌍송리 선고묘 우측에 있다.

중희(仲禧)의 차남 선(瑄)의 증손 몽남(夢南)은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이며 선조조 효행으로 정려(旌閭)가 내렸다. 부친 확(確)은 증 병조참판이다.

18世 감사공(監司公) 각(恪)

공은 사마시 문과급제하고 세종 29년 식년시 급제하였으며 중종 1년 증광시 급제하였다. 세조 7년 사간원 정언, 세조 9년 사헌부 지평, 11년 호조정랑으로 전라도 경차관(敬差官)으로 나갔다. 세조 14년 일본국 통신사(通信使)로 나갔으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중국에 다녀왔다. 예종 1년 호조참의가 되고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다. 그러나 성종 1년 조카 맹희의 사건과 연루되어 성종7년 경기 진위로 부처되었다 풀려났다. 묘소는 안성의 원당 시묘동에 있다.

증손 질(耋)은 첨정이고 현손 사공(士恭)은 호가 성암(醒菴)이며 선조 34년 사마시하고 선조 39년 증광시 을과 1인으로 급제하여 광해군 6년 병조좌랑이 되고 광해 10년 인목대비 폐출에 참여치 않았다 하여 탄핵을 받고 창성으로 유배되었으며 광해 11년 유배지에서 졸했다. 인조 1년에 임금이 치제(致祭)케 하고 예조참의로 추증하였다. 묘소는 안성의 원당 시묘동 선산에 있다.

〈감수 : 박지사 권영부, 편집 죽당 권경석〉

△20세 이평 묘소 : 마도면 쌍송리 송치(선고묘 우측)

△ 21세 용 묘소 : 마도면 쌍송리 송치(선고묘 우측)

△24세 대순 묘소 : 화선시 마도면 쌍송리

△24세 대순, 25세 수영 묘비

△24세 수영 묘소 : 화선시 마도면 쌍송리